東亞日報

價定 一個月 六十錢 … 廣告料 …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印刷人 …

農業專業의 危險 (上)

一

今夏에 旱水災가 交至한 以後로 朝鮮人의 生活은 大恐慌을 感하게 되얏다 그리하야 社會各方面으로 이러나는 悲慘한 消息은 地方과 都會를 勿論하고 나날이 激增하야 가고 嗷々한 人心은 貧者富者를 區別할것업시 그 底止할바를 모르는 디경에 臨하얏다 이것이 勿論 天災인 不可抗力의 所使에 基因한것이니 누구를 怨望하며 누구를 허물할바는 아니나 그러타고 우리는 한갓 袖手無策하게 안자서 運命의 命令을 기다리고만 잇지 못할것은 또한 말할것도 업는 일이니 될수잇는대로는 極力하야 對策을 講究하는것이 當然한 일이나 此際에 根本的으로 우리의 生活方針을 論議討究하는것도 決코 無意味한것은 아닌가 한다 우리는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의 職業을 農業에만 依賴치 못할것을 議論하야 同胞의 注意를 喚起코저 한다

二

今日朝鮮人의 職業中에는 工業도 잇고 商業도 잇고 漁業도 잇서 그 種類가 그러케 單純치는 아니하나 그러나 住民의 八割이 農業에 從事하게 되니 自然朝鮮人의 命脈이 農業에 잇고 朝鮮人의 盛衰榮枯의 關鍵이 農業에 잇는것은 事實이다 그럼으로 이 業이 한번 興旺하면 朝鮮人의 活動이 興旺하고 이 業이 한번 衰頹하면 朝鮮人의 活動이 또한 衰頹하는것은 우리가 스사로 體驗하야 익히 아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主業되는 農業을 爲하야 不絶히 注意하고 不絶히 努力하야 될수잇는대로 이 業을 發達케하고 振作케하는것은 우리의 當然한 일이라 할수잇다 그러나 周圍의 事勢를 살피고 各國의 先例를 보매 우리 朝鮮도 農業만으로는 到底히 國民이 生活할수업고 一層나아가 繁榮과 發展을 期待할수업는 듯하다

三

이제 우리가 農業만으로 살수업는 理由는 큰것으로 두가지가 잇다 첫재는 米의 輸出이 漸次減殺될 傾向을 가진것이니 지금 世界의 人口를 米食人種과 麥食人種의 兩種에 난호아 보면 그 太半이 麥食人種이오 白米를 常食으로 하는 人種은 中國의 中南部, 朝鮮, 日本, 南部亞細亞에 잇는 사람들 뿐인데 이 사람들도 各國이 自給自足의 手段을 取하는 關係로 自國에서 要求하는 食糧은 모도다 自國의 所産으로 充足한 模樣이고 그 뿐만 아니라 南部亞細亞의 一帶는 米産이 豐足하야 年々히 外國으로 輸出되는것이 만코 또한 近來에는 北米合衆國에서도 米의 産出이 漸次로 增加하는 바이라 朝鮮의 白米는 아모리 豐作이 된다할지라도 이것을 外國으로 輸出케 하기는 極難하고 다만 二三百萬石식이라도 輸出될 餘地가 잇는 곳은 오직 日本 뿐이나 日本도 近來에는 産米增殖의 政策으로 自給自足의 計劃을 實現하랴 하니 日本을 唯一한 市場으로 하는 朝鮮米의 將來가 大端히 危殆하게 보인다 그러면 白米 하나를 의지하야 가지고 먹고 입고 쓰며 活動하는 우리의 生業이 어드러케 十分 安全하다고는 말할수 업는 것이다

四

둘재는 凶作時의 恐慌이니 한가지에만 局限치 아니하고 農業에 從事하는 사람도 잇는 同時에 工業에 從事하는 사람도 잇고 商業에 從事하는 사람도 잇다 하면 비록 한가지 業의 失敗가 잇다할지라도 그 失敗는 다른 業에 從事하는 同胞로 因하야 能히 救濟될수도 잇는것이오 能히 補充될수도 잇는것이나 지금 朝鮮과 가치 全國民이 오직 農業에만 從事하는 나라에서는 한번 偶然한 災害로 因하야 失敗를 當하게 되면 그 失敗가 全國的으로 되야 害毒을 입을 뿐이오 다시는 그 失敗를 補充하야 줄 餘地가 업스며 다시는 그 罹災者를 救濟하야 줄 同胞가 업게 되는 것이다 …

『또스』案實施延期

賠償集合總務『오펀·양』氏는 獨逸이『또스』案에 準據하라고 全力을 다함을 보고 滿足한 뜻을 賠償委員에게 말하며 또 獨逸의 同案施行의 準備手續도 完了하랴하고 다시 十月三日外지 七日間의 猶豫를 주자고 提議하야 賠償委員等은 此에 同意하엿더라(巴里三日發)

中聯盟總會에抗議

中國代表는 二日聯盟總會의 理事國選擧에 落選하엿기 때문에 三日 常備理事會에 同提議(東洋에서도 選擧에 依하야 理事國을 選出할것)를 拒否한 聯盟總會決議에 對하야 公式으로 抗議를 提出하엿더라(제네바三日發電)

東鐵問題로佛抗議

佛國代理公使는 四日朝에 外交部에 文書를 보내여 今回成立한 露奉協定이 만일 中東鐵道에 關한 佛國民의 利益을 害할것이면 佛國은 抗議할 權利를 保留한다고 通告하엿다 露中協定成立時에 抗議한 日, 英, 米三國도 또 이번 露奉協定에 對하야 前番同樣으로 同協定은 中東鐵道에 關하야 各自國民이 가진 權利와 利益에 侵害할수업다고 抗議를 하리라더라(北京四日發)

中國動亂과露國

調停依賴가잇스면盡力한다고

獨逸及『에스토니아』系統新聞『알포레』의 報告에 依하면 勞農政府는 中國內亂에 關하야 中國政府의 調停依賴가 잇스리라고 豫期한다는바 中國의 依賴가 잇스면 政府는 中國을 爲하야 盡力하리라더라(『코펜하겐』四日發)

土軍英機를射落

『모술』國中을 橫斷한 英國陸軍飛行機는 土耳古軍에게 射落되야 操縱者及偵察者는 虜되엿더라(노엔無電四日發)

歐洲戰前事態

獨逸에서出版

獨逸外務省은 二十日에 歐洲大戰勃發前事態에 關한 往復文書를 求하야 出版한다고 發表하엿더라(伯林三日發)

獨逸公債發賣

獨逸公債는 此數日間에 世界各國에 賣出되리라하더라(倫敦發)

伊國將校被捉

馬耳西警察은 前에『맛테옷티』暗殺共犯으로 伊國檢事總長에게 追訴된 伊國將校『마라크리아을』逮捕하엿더라(노엔無電)

獨逸加盟問題

佛內閣에審議

佛內閣은 三時間에 亘하야 會議하고 獨逸의 聯盟加入으로『벨사이유』條約의 實行을 緩和하야서는 아니된다고 規定할事를 要求하기로 決議하엿더라(巴里二日發)

日本全權態度와 米紙의論調

今番國際聯盟에서 日本全權의 取한 區々한 態度에 對하야 米國輿論은 不一한바 共和側新聞은 一致하야 日本態度를 批難攻擊하며 一方中立派民主黨側新聞論調는 日本을 稱揚하야 日本全權이 主張한 裏面에는 何等日米問題를 包含한것이 아니고 도로혀 이것으로 國際聯盟總會의 事案에 對하야 將來의 希望을 催促한것이라 하엿고 民主黨機關『월드』紙는 日本攻擊의 論調에 對하야 排斥에 盡力하는 中이더라(東京電)

헤王大敗避難

大敗한『헤되아스』王『후쎄인』은 一萬六千의『헤되아스』避難民과 함씌『메카』에서『겟다』에 到着하엿더라(노엔無電四日發)

西南三省聯合軍

湖北을衝擊코자準備中

湖南省議會에 同省西部出身議員의 報告한바에 依하면 雲南, 貴州, 四川聯合軍은 目下貴州東部에 駐屯하고 湖南東部를 通過하야 湖北을 攻擊하라고 하는바 만일 이것이 實現되면 全大局에 大變化가 생길것은 分明하다더라(上海四日發)

江蘇軍困憊

某處情報에 依하면 江蘇軍現狀은 疲弊困憊하고 軍隊는 戰鬪할 意志가 업시 齊燮元은 각금 吳佩孚에게 援軍을 求하는 中이지만은 援軍의 約束이 잇는 湖南湖北도 容易히 움직이지 아니하고 河南, 安徽의 援兵이 왓스나 戰鬪力이 업서 所用이 업다 江蘇軍은 窮地에 싸졋고 浙江軍은 比較的 困憊는 몰으다더라(東京電)

浙江省長辭任

浙江의 夏超는 大總統命令으로 九月二十七日附로 浙江省長으로 任命되엿는바 同人은 二十九日 大總統의 務委員, 浙江省各團體에게 對하야 辭任의 電報를 發하엿다 그는 浙江民心이 旣히 吳佩孚에게서 軍資金追徵을 바들가 恐하야 離反한것을 안外닭이더라(東京電)

英米援助와 吳氏參謀談

四日吳佩孚氏本營에서 政務方面을 擔當한 總司令部參議白堅武氏를 訪問하고 이러한 問答을 하엿다 問, 日本서는 戰禍가 滿洲에 밋치게 되면 滿洲의 日本利權은 危殆하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니 事實 이러한 念慮가 잇는가 答, 은 滿洲가 中央政權에 歸屬하면 滿洲의 日本旣得權은 이것을 完全히 할것이오 또 張作霖氏一個專橫時代보다도 더 圓滿하게 더 合理的 特殊關係를 認하야 이것을 增進할것은 確固한 우리의 決心이오 나올은 奉天援助說이 喧傳되는 同時에 또 英米와 北京當局의 親結하라는 傾向이 잇서 日本朝野는 對策決定에 迷惑한다 問, 이 日本의 援奉說과 北京의 親英米說에 對한 意見은 如何 答, 吳佩孚氏와 張作霖氏를 比較하면 吳佩孚氏는 其出身閱歷이 士大夫이다 또 國家先輩友人部下에게 對하야『誠』의 一字를 信條로 삼는다 이와 反對로 張作霖氏는 如何한가 그 出身은 말할것도 업고 그 不德은 枚擧키 未暇이다 日本朝野가 …

利權細目이問題

進捗되는日露交涉

日露交涉은 九月二十七日以來 俄然히 攻勢를 示하고 利權以外의 各種問題에 對하야는 兩全權委員意見이 大略一致하엿스나 利權問題의 細目에 亘한 二三重要點에 幾分間隙이 잇슬뿐이다 本件이 承認만 하면 交涉은 成立될터이라는데 右에 對하야 카라한氏는 莫斯科政府에 最後的으로 請訓中인바 그 回訓만 잇스면 基本協定은 調印될터인즉 늣저도 本月十五日頃外지는 擧皆解決될 模樣이오 萬若 十五日前에 調印이 成立되면 日本은 即時 撤兵을 斷行할 方針으로 撤兵의 步를 期待한다더라(東京電)

奉軍作戰

奉天軍은 連戰連勝의 形勢로 三十日에는 凌原을 占領하고 直軍前線部隊에 致命的打擊을 주엇스니 事實인바 또 山海關方面은 奉軍은 前衛陣地를 占領하고 非常히 有利한 地位를 어덧다 그러나 熱河喜峯口方面은 直軍의 가장 要害한 地임으로 이 地方에서 直軍의 大部隊는 集合하야 이곳에서 奉直戰의 最後決戰을 할터인데 奉軍은 嚴寒時의 持久戰에 一昨年은 失敗하엿스니 이番은 徐々히 策戰을 計算하는 中이라더라(奉天四日發)

奉楡線輸送

軍事는一段落

開戰後 一般으로 輸送不能이든 奉楡線은 軍事輸送에 一段落이 되야 今後는 다만 補給品輸送뿐인즉 本月中旬부터 一般輸送을 復舊식힐 豫定이라더라(奉天四日發)

直隸一師司令

戰死는虛報

某處入電에 依하면 直隸軍第一師司令彭壽莘의 戰死는 虛報로 그는 北京에 잇다더라(東京電)

熱河占領에

十二萬元懸賞

奉天軍은 近頃 熱河를 陷落식히라 하는데 張作霖氏는 士氣를 鼓舞키 爲하야 熱河를 完全히 占領함에는 그 士軍에게 十二萬元을 주고 또 將卒은 破格的進級을 식힌다는 뜻을 第二及第五軍司令官에게 傳達하엿더라(奉天四日發)

日本人은探偵

이라고罵倒

山海關特派員守備隊의 安信中尉는 巡察中 直隸派에게 拘禁되야 十五師團司令部로 다리고 갓는데 이것을 見한 李參謀長은 守備隊를 訪問하고 謝罪하엿더나 그러고 日本兵 …

日本의對中態度

相當한干涉論이擡頭

四日閣議에서 幣原外相의 詳細한 外交經過報告가 잇섯는데 目下中國動亂의 情勢에 對하야는 자못 緊切한 報告가 잇서 中國形勢가 激變하야 감에 當하야 가장 緊接한 利害關係가 잇는 日本政府가 … 的 또는 旁觀的態度로 內政不干涉主義를 取하는것은 決코 得策이 아니다 엇마큼 決心하는 바가 잇서야 한다 하야 閣僚間에도 相當히 强硬論을 主唱하는 者가 잇서서 論議한 結果 幣原外相도 이에 對하야 考慮中이라고 言明하얏는대 … 外相의 考慮가 如何한 形式으로 나타날것은 斷定키 어려우나 日本政府의 對中方針을 表明하는 聲明書를 中外에 發表할 事實이더라(東京電)

不干涉을發表

四日閣議에서는 幣原外相이 各大臣에게 配布하고 外相이 約四十分假量 說明하엿고 中國動亂에 對하야도 詳細히 報告를 하엿다 이 問題에 對하야는 政府方針을 誤解할 念慮가 잇서 이러한 疑惑을 풀기 爲하야 日本政府方針은 絶對不干涉主義라는 聲明書를 發表키로 決定하고 外務省이 該聲明書를 發表하리라더라(東京電)

對中國民大會

日本國民은 蹶起하야 自守的積極的對中策을 樹立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겟다고 近衛公, 鎌田榮吉, 頭山滿等 各階級의 代表者一千名이 企劃하야 對中國民大會를 四日芝增上寺에 開催한바 參會者三千餘名이오 要路諸人의 警官數十名이 現場內外를 警戒하엿다 正午頃에 橋本鐵馬氏가 開會를 宣하고 近衛公이 座長으로 着席한 後 宣言決議를 可決하고 또 演說은 上杉愼吉, 三宅雪嶺, 一, 佐藤安之助, 望月小太郎等 約三十名의 辯士가 熱辯을 吐하고 六時頃 散會하얏는바 左記要領의 宣言決議는 當局에 提出하엿더라(東京電)

宣言

今番中國動亂은 遂히 列國勢力을 誘引하야 中國을 第二埃及化하려 하니 이는 … 一大事이니 袖手傍觀치 못할바이다 故로 日本國民은 … 亞細亞의 保全을 期하야 … 이를 實現키 爲하야 臨機相應할 犧牲을 不辭하노라

決議

一, 日本國民은 中國今番의 動亂에 處하야 其統一保全과 東洋平和를 爲하야 相應한 犧牲을 拂할 覺悟가 잇슴을 闡明함

二, 日本政府는 中國全局에 對한 日本特種의 地位와 使命에 鑑하야 速히 自主的國策을 遂行할일

滿洲特産物

出廻激增

滿洲特産物은 開戰後 中國側이 … 馬車를 徵發함으로 輸送이 杜絶되여 滿鐵收入에 大影響이 잇스리라고 憂慮되던바 其後 中國官憲이 荷馬車의 不徵發을 聲明하엿슴으로 昨今 特産物의 出荷가 激增하야 滿鐵의 輸送에는 盛況인바 滿鐵은 來七日부터 每日四列車를 增發하기로 決定하엿더라(奉天電)

李氏渡日과 各派의活動

中國動亂에 對한 外務當局의 態度에 憤慨한 中國浪人等은 盛히 暗中飛躍하는 中이나 … 李烈鈞이 東京에 來하고 四日에는 對中國民大會가 開催되엿는데 또 四日夜에는 吳佩孚援助를 標榜하는 一團體의 演說會도 잇스며 … 三日朝 各大臣及樞密顧問官, 貴衆兩院議員等에게『吳佩孚의 裏面에 米國이 잇는 事實』… 千五百圓假量을 捻出케 되엿더라(東京電)

緊張한整理案

政府側三委員에 對하야 數字에 依하야 成立된 行財兩政整理案에 對한 數字的으로 對案을 提出하기는 陸海軍兩省뿐인바 … 結局六日閣議에는 各省節約額이 … 參考하야 暫定的으로 決定될 模樣이나 만일 各省整理額이 三委員이 作成한 原案의 整理額에 非常한 距離가 잇슬 때에는 財務當局은 … 要求키로 決하야 … 더라(東京電)

日本米作豫想

前年보다增收

日本의 今年度米第一回豫想收穫高는 旣報와 如히 九月二十日現在에 五千八百十三萬九千四百七十一石으로 前年收穫高에 比하야 二百六十九萬五千七百九十五石(四分九厘)의 增加이나 最近五個年平均收穫高에 比하야 九十二萬九千五百八十九石의(一分六厘)의 減少이더라(東京電)

輸移米調査

農商務省發表에 依한 昨年端境期十月一日以來 本年八月末日外지(一分六厘)에 依한 … 輸移出米는 五十七萬五千三百五十八石으로 此를 前年二十九萬七千八百六十三石에 比하면 二十七萬七千四百九十五石의 增加이며 外國米의 輸移入은 … 前年에 比하면 二十七萬三千二十三石의 減少이더라(東京電)

直軍策略

陣頭에선吳佩孚

朝鮮軍某參謀談 奉直兩軍決戰의 期가 切迫한 今日에 直隸軍의 行動은 比較的 情報가 多大하나 決戰期가 接近함과 同時에 外部에는 알니지 아니하는 部分이 … 作戰의 期 … 에 關하야 朝鮮軍司令部某參謀는 … 하면 直軍은 山海關方面에 主力을 注하야 京奉沿線에 殆히 大半의 兵 …

西園公入京

與津에 滯在中이든 西園寺公은 五日入京할 豫定인바 이 番公의 入京은 何等政治的意味가 업고 震災에 因하야 本邸가 修築되엿슴으로 自邸에 外觀하려 한다더라(興津電)

陸軍整理總額

二千八百萬圓으로決定

陸軍整理案의 大綱은 四日閣議에서 決定되얏는바 그 整理總額은 二千八百萬圓으로 安全 一千五百萬圓을 陸軍의 最後主張으로 作하야 大略合致되엿더라(東京電)

補助艦은建造

四日閣議에 海軍整理는 兩省의 議에 依하야 補助艦建造計劃이 延期될 것이 … 海軍主張대로 建造키로 되고 其代價은 他方面에 二千五百萬圓假量을 捻出케 되엿더라(東京電)

政友會는樂觀

十行財整理

… 政友會는 政府側의 財政整理에 對하야 … 樂觀하는 中이더라 …

議員視察團

吳越同舟로入京

… 一行十四名의 日本衆議員 … 中國視察團 …

憲政

… 의

鐵道直營實現

… 東鐵 … 朝鮮의 鐵道直營 …

米價昂騰防止

吉祥代議士의陳情

政友會吉祥代議士는 四日農商務省에 出頭하야 … 米價가 昂騰하야 …

學藝欄

犯罪者의特質(下)

◇犯罪者는 虛飾을 조화하고 遊蕩을 몹시보는 性質이 잇는 외에 름만잇스면 表現하게 모양을 버며 동무들을 부르다 가는 罪囚라고 말을 먹는다 强盜나 竊盜는 殺人犯에 比하야 勢力이 업고 恒常 犯罪者는 殺人犯되는것을 同類間에 唯一한 名譽로 여긴다 ◇男囚는 … 女囚는 …

◇犯罪者는 흔히 꿈이 만하다 … 이생기엇다 또어느 女囚는 入獄할 때 몸에 단장 諸具를 가지고 와서 出獄할 때 外지 顔色이 衰하지 안케 하느라고 苦心한일도 잇섯다 …

◇犯罪者의 犯罪觀은 研究할 만한 興味잇는 問題다 犯罪者는 大槪 自己行爲를 正當하다고는 認한다 …

하엿다 그러한데 大臣명사들은 … 롬부로소(Robroso)는 이탈리 學者이니 그의 著書『犯罪人論』은 犯罪人에 關한 科學的研究의 開始라 한다 오늘날은 犯罪學이라는 學科가 成立되얏는데 … 派는 犯罪의 原因이 社會에 잇다고 한다 …

消息

◇佛國文豪『아나톨·푸란스』氏는 過去數週間『巴里』附近別莊에서 病臥中이든바 最近病勢가 危篤에 陷하엿더라

◇駐日中國公使赴任 駐日中國公使汪榮寶氏는 七日天津發 … 으로 神戶를 지나 陸路로 東京에 向할 豫定인바 一行은 夫人從者等十四名이더라(東京電)

東拓支店監査開始

東拓朝鮮支店의 定例監査는 一日부터 開始된 京城支店의 監査를 비롯하야 順次各地支店에 着手할 터인데 … 三日로써 終了할 豫定이더라

橫說竪說

◇英國首相이 三十萬圓 밧는 맛에 實業家하나를 男爵으로 推薦하고 議會에서 困境을 當하엿다 한다 어데든지 利欲에는 말썽

◇日本政府 三派가 中國問題에 對하야 積極的으로 權利를 擁護하라고 外相에게 談判하얏다 이것은 아마 米國에 다 談判하는 것이 捷徑이 깃지

◇朝鮮總督府政務總監 下岡忠治閣下가 東京에 가서 人物試驗을 밧는 中인데 難問題가 만하서 朝鮮總督府 高官들은 落第하겟다고 걱정中이라든가 우리에게는 風馬牛不相及

仁川日用物價

(十月四日仁川支局調)

白米 … 玄米 … 粟 … 木炭 … 石油 … 鹽 …

秋冬帽新着 廉價提供

最新式優秀品 中折帽
壹圓六拾錢 貳圓也 貳圓貳拾錢 貳圓五拾錢 參圓也 參圓五拾錢 參圓六拾錢 四圓也 四圓五拾錢 六圓六拾錢 六圓七拾錢 五圓七拾錢 七圓五拾錢

舶來品中折帽
九圓五拾錢 拾圓五拾錢 拾參圓也 拾貳圓也 拾參圓五拾錢 拾五圓也 拾五圓也

輕快瀟洒 青年向 剌子帽子
參圓貳拾錢 參圓五拾錢 參圓參拾錢 參圓七拾錢 參圓八拾錢 四圓也 四圓五拾錢

最新流行 特撰新型 鳥打帽
貳圓也 貳圓貳拾錢 貳圓五拾錢 參圓七拾五錢 參圓八拾錢 參圓九拾錢 貳圓九拾錢 貳圓五拾錢 貳圓八拾錢 參圓五拾錢 參圓五拾錢 參圓七拾五錢

學生帽 弊店新製品特價提供

今秋브터地方部擴張宣傳販賣

帽子注文은반다시帽子界權威인
京城鍾路二丁目(파고다公園前)

歐米帽子直輸入商
林帽商店으로

京城鍾路二丁目一〇〇(電話光一〇…)
林帽商店支店

ClibPDF - www.fastio.com

積年收集古美術品 無償提供을言明

십여년모아둔조선의보배를 보수업시사회에내노켓다고

글씨로그림으로 건축으로 조각으로 마는 나는실상 넉넉한마지이를팔 으로넷날의 조선을 엿밧가치우 아서 그림한폭을어더오고 세간 미이든 조선의모든 미술품은시 을팔아서 글씨한쪽을 모은것이 사로업서지고 재변으로 업서지고 『분로초군』으로 그래도 지금에 고말지못하야 찾지못하고 차첫 는 커만콤모아 개되엿습니다 커 스나해앗기고하야 이생기는것도아니고 밥이생기거나 옷

◇녯날의 광명이나마 차 것을모은다고 도로혀 내 차살아지려 하는때에 덕남출생 자신의구복은 줄어드는 세움이 (德南出生)으로방금시내인사동 지마는 그런생각을하고야 모아 (仁寺洞)에사는림상종(林尙鍾) 질수잇슴닛가 그러나인케는 정 씨는어려서부터 스러저가는 민 성뿐이고 힘이업슴니다 족의자랑거리를 남달리 앗가워 ◇저러케 모은물건이 얼 하여 자긔의일생을 고조선미술 마콤이나 되는지는 모를 품수집 보존에 밧치기로 하고 조임석에 업서질는지도 모릅니다 십여년이래로 자긔의 거대한 이고한폭두폭식잘겅이거니엇갯 재산을 이에랑비하야 버표덕미 을생각하면 소름이 꼿꼿합니다 술품이라 할만한 그림(畵)이라 든이흩어진한곳에모아미술관을 폭과글시(書)삽힌폭과 신라(新 지으시겟다는 개인이나 단데가 羅)고려(高麗) 리조(李朝)벼의 잇스면 아모보수도업시 그대로 그릇도자기(陶磁器)수백종과기 나내여주겟습니다 이것을하나하 라불동품 수십종과옷맛는데 이 나헤여헛허지면 쉬운일 이지요 가온데는산한시대의불상(佛像) 만은 나는죽어도 그러케는못하 도잇고구하지못할 고려 공민왕 겟슴니다 엇더케하든지 한데뭉 (恭愍王)의호렵도(虎獵圖)도잇 처여영구히 보존되기를 바랍니 고근세의 신화라하는장승업(張 다는빌뜻에는 무한한 정신과보 承業)의그림도잇고김종서(金宗 배에대한처정이넘치엇다 瑞)의글씨도잇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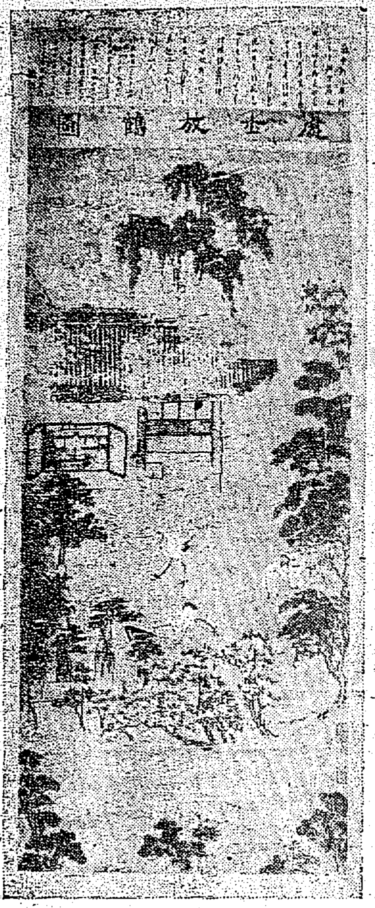
◇고구려 의 유물로집안현(輯安縣)에잇는 영락대왕(永樂大王)비의탑본(拓本)도 잇고 그밧게 신라 고려때의 조각(彫刻)도기(陶器) 동긔(銅器)등우리나라의 고귀한미술품은 거의 가추어잇는데 이가튼 거대하고 어려운사업에 일개인의힘은 한이잇서 지금의림씨는 살림살이 어가든 여러장의연방표와 이가든보배를 굶어죽어도 영원히보존하겟다는 정성만 남앗슬뿐인데 만가지일에 돈의힘이드는지금에잇서서정성만가지고의지다무슨변을당하야한쪽의그림이나한개의그릇이라도일켜나하면엇지할가하는걱정으로 림씨는

◇단연히 결심하고 엇던 개인이나 엇던민간단데에서 이것을영구히마련 사회의 공유물로 완전히보존하는 긔관이생기면 조금도앗기지안코 서화 그릇등 전부를 내여놋키로하엿다더라

「分勞寸功」

석팔아그림한폭 林尙鍾氏談

이소식을듯고 왕방한 긔자에게 대하야 림씨는 감개무량한 표정으로말하되『참말인케는 내힘만으로는 더엇지할수업게 되엿습니다 아시는이는 아실터이고 모르시는이는 모르실터이지요



◇허난설헌(許蘭雪軒) 녀사의 휘호 ‖(긔사참조)‖

飢饉의慘狀

이러케도령령한가

◇전남무안군 이로면죽교리(全南務安郡二老面竹橋里)에사는박봉배(朴鳳培)의가족다섯명은 생활이곤난하야이틀누얼이나 굴머오다가 어린아이들의 밥달라는 부르지지는소리를듯고 부근산으로가서 버섯을따다먹고 중독이되여 가족다섯명의생명이 위독하다는비참한소리를드른 우리는다시 고창군오산면두계리(高敞郡五山面斗溪里)에사는진명선(陳明善)의가족이 독한버섯국을쇠려먹고 하나는밋치고 다섯식구는생명이 위독하다는놀라운소식을듯게되엿다

◇물론먹으면 생명을 이러버리는독한버섯을 감식(鑑識)치못하는것은 상식이 업는것이라하려니와그이들은 이것이먹어서 엇든것인지 분간할여유조차업시 배를주리고 잇다

◇누가 생명을앗기지안는 사람이잇스며먹고자아니하는사람이잇스랴마는 생명을앳길래야앳길수업고먹고자하야 먹을수업는불상한민중이얼마나만흘가

◇생활이나날이 곤난하여가는 조선사회에서 더욱히금년가치 각종재해가 닥쳐온때에이와가치참아듯을수업는비참한사실이 얼마나만흘가

◇그러나 한엽흐로는 이와가튼것을 리용하야 폭리를탐코자하는 착취계급(搾取階級)이 발호한다는 소문은잇슬지라도 아즉싸지철뎌한하등의 구제방침은 듯지못하겟다

◇아!우리사회는 이러케도 냉정한가? 이와가튼모순이언케싸지나 갈것인가?

五六名獨立團 十餘處에軍資募集

평북초산읍내부근에서

지난달삼십일에 평북초산군 읍내(楚山邑內)에서십리밧게안되는모단동(慕段洞)에오륙명의독립단이김봉각(金鳳珏)씨집외십여처에드러가서 군자금을모집하야가지고 종적을 감추엇는데 초산 경찰서에서는 대활동중이라더라(초산)

黃州興業支社 小作爭議公判

최고종역오십일

거보=흥업주식회사(興業株式會社)황주지사(黃州支社)대(對)동사소작인간의소작쟁의로 발매암아이러난소위소요(騷擾)사건의 데이회공판은 사일오전 평양디방법원(平壤地方法院) 데이호 법뎡에서 개뎡하고 재판당으로부터 사실심리가잇슨후 렵회검사로 부터 피고들의 죄상은다소간 동정할덤이잇스니 모다일년이하의 증역에처하여 달라는 구형이잇고 변호사로부터 피고들의 애매무죄함을 변론한후 즉석에서재판당으로부터 다음과가튼 판결언도가잇섯더라(평양)

▲朴成培、尹基一各懲役五十日 金致玕、金泰元、李昌根、金鎭、虞興福各懲役三個月에對하야 一年間執行猶豫

封套大小制限

일본 데신성(遞信省)에서 우편물의 봉투를 가튼형상으로 뎡하자는의론이 잇서서 의론이일치하는 때에는 곳실시되리라는데 이에대하야 데신국당국의 이약이를 듯건대일본에서 그가치결뎡되면은 조선에서도 며개그대로 사행할방침을 고려중인데 이것이곳조선에 실시가되면 봉투지를만히 박어둔 큰상덤에 적지안은 타격을주겟슴으로 곳실시되기는 어려울것이며 새로케정하는 봉투의지질도여러가지로 연구중인데 백색이나 다갈색의모조지(模造紙)나또는 『하드롱』지는 물도잘안먹고 렵렵글시도잘바를 터임으로이것으로 지정될는지도 모르겟스며 그케정되는봉투의 대소는 대개세종류로난호아

▲大型 縱七寸 幅三寸五分

▲中型 縱六寸 幅三寸二分

▲小型 縱五寸五分 幅三寸

으로 케정될듯하다하며 조선에서는위선 관령측에서부터 모범을보혀 차차개뎡될듯 하다더라

平壤飛機又墮落

착륙하다가뎐신줄에걸려서 機體破損、死傷二名

평양(平壤) 비행대대로바미(第六大隊)을칠호(乙七號)비행긔가 사일오후네시사십분경에 그곳비행장에서 착륙할즈음에 뎐선(電線)에 걸리어 떠러진결과 조종자(操縱者) 령목(鈴木)중위는참사하고 동승자 대내부관 복부(服部)대위는 중상을 당하야 생명이 위독하다는데 그날은 마춤룡강(龍江)까지의런습비행을 마치고 도라오든길이엿다더라(평양뎐보)

連天庵廢止說

쉬고렁은어데잇노?

충청남도 계룡산신원사 주지김난옹(忠淸南道鷄龍山新元寺住持金蘭翁)은 요사히 계룡산 삼봉밋헤 잇는련텬암(連天庵)을폐지할계획으로군당국에교섭중이라는데그리유를듯건대 오랜역사(歷史)를가진고적(古跡)을보관할생각은업고 목킨의 풍족한생활이아니되는것만걱정을삼아련텬암이 퇴락하엿스니 다시중수할능력은 업고보관할 유지비로 매월 백미 삼사두(白米三四斗式)든는것은 경비의예산이부족하다고 그칠을폐지 하겟다고하는것이라는데 일반부근 인사와 승려(僧侶)의비난이 만타하여 방금성토를 발긔중이라더라(공주)

平壤에猩紅熱

다섯살된아이가걸려

평양본뎡(平壤本町)삼십륙번디사는오준기(吳俊基)(五)는 수일전부터 렴병에걸리여 고민하든중 지난삼일에 의사가 진단한결과성홍뎔(猩紅熱)로판명되여곳다른곳으로 격리식혓다더라(평양)

不貞女性의末路(一)

이남자저남자사괴든끗테 목매여죽은김뎡숙의일생

◇……재작사일 오후한시 부터세사이에 시내 내자동(內資洞)륙십칠번디 리은영(李殷永)집에류숙하든 녀학생 김뎡숙(金貞淑)(二○)은 자긔방안문고리에 동바로목을매고죽은것을 그집안주인이발견하고즉시 종로(鐘路)경찰서에 통디하야 경찰의가출장하야응급치료를하엿스나 회생치못하고말앗는데 주인집에서는그대로뉘여두고 그고향인경상북도 령도(淸道)로즉시뎐보를 쳣다하며죽은리유를드른즉

◇……김뎡숙은 수년전에 상경하야서시모괴속사에몸을붓쳐고뎡죽강습원에 얼마동안다니다가 금년봄에 배화학교(培花學校)보결생으로입학하엿는데 일되야공부를하든터인데 본래부터 품행이 아름답지 못하야 그고숙사에서도 내여보내고자하든중 맛츰 동경명치대학에 다니는 림재은(林在殷)과친하여저서림재은이가 잠시몸을붓치고잇는 적선동(積善洞)구십번디의삼호 림한수(林漢洙)씨집으로밤낫자조 다니다가

◇……림재은이는 그후동경으로건너가서 아주인연을끈하버리고지난구월사일부터 다시그집의부인방에 한이삼녀일류하면서 다시락원동(樂園洞)산다는김영필(金永弼)이라는 남자와친하여 두다가 그주인집에서 잇지못하게되야 지난달에 루날에한달에식비 십오원식을 로뎡하고 한커내자동으로 옴마는누구인지는모르되 웬청년 왓섯는데죽기전날인 삼일날에 자를쓴남자하나와갓치 도라와 그날밤음남자고죽은날 아츰에조반을먹고 도라가버렷는데 뎡숙이는그뻐에그남자를 뒤쫏하고 도라와서는문을닥고 아모말업시 죽어버린것이라더라

自殺前의一夜

수상한남자의방침 그는과연누구

◇……죽은사람이말이엄슴으로 그날밤에 자고간남자는 파연누구인지알수업스나 주인하 그잇든 여러군데의말을종합하여보면 퀸거와가치림재은이와도친하엿고 김영필이와도관계가잇섯다하며 또듯건데얼마전에 귀던고등보통학교생도 리태원(李泰遠)이와 정이드러의 흥통하엿다하니 엇더케되는세유인지 진상을 아즉알수업스나 죽는날아츰에 가치자든 남자가 세상안연습에그주며니에서 돈십원을 내어주인에게 밥감을 무러주엇다는바나중에그남자가세어서 왜 나의돈을 말업시 쓰냐고 뭇지 남은 돈을하다가 나중에는

◇……고소를한다고 음법너이매 뎡숙은 겁이나서 주인에게 애걸하야 주엇든 밥감중에 국원만찻고 자기옷다섯가지를 주인집에맛기며 얼원에잡혀다가 칠원만을 그남자에게 돌려주엇다는데 이남자가 가치무정한 남자에게 그와가치욕을당하고도 퀸술하야하고 도라와서 죽엇다니 파연죽은것은 누구때문이며 그남자는누구일가?

第一回 全朝鮮 懸賞學生雄辯大會

◇本月中旬開催 ◇主催 東亞日報社

詳細追後發表

敎會堂을放賣

출교당한녀자

안악군의팔성여러

안악군 동창포조선긔독교 에서는출교당한교인장학래(莊學來) 나자금 문데중에인는 본레장로교의목사이든김장호(金莊鎬)씨가 대정칠년경에 조선긔독교라는명칭하에서 교파를 갈는것은세상이 다아는바인데 퀸긔동창포에도 몃사람의 동지를어더 교인사려에서 례배를보다가 교인수가 늘어감을따라서 례배당을사가지고 의론한진과로 김은수장학래(金恩洙張學來)두녀자가사십원식 그외에 이집원은여러교인들의 의연으로 도합백원을모하 례배당을사서 지난달지멋해동안을 하여왓는데 퀸긔장씨는 파부의몸으로 부청한행동이잇섯슴으로 그임이 발각되자그교회에서는장씨를출교식히엿든바 지금에이르러 김은수와 장씨가 그가치례배당을 팔앗슴으로 교인일동은 매우분개하다하며『그집을삼백에 례배당으로 승명을 낸것이아니고 김은수와 자긔와 두사람의개인의 소유로 승명을냇것이니와 버돈드리 간것만찻고그외는집씨의게돌려보내겟다』고 말한다더라(동창포)

◇림 상 종 씨 ‖(긔사참조)‖

生寡婦로失貞

우동자낫코경찰서

평남맹산군 옥천면북창리(平南孟山郡玉泉面北倉里)라사택(羅士澤)의 장녀 라탄실(羅彈實)(二○)은지금으로부터삼년권에동군원남면남창리(元南面南倉里) 김모(金某)에게로출가를하야 이래서집사리를 하여왓스나 팔자가긔박한 탓이엇든지 튼벌히이러타할만한 원인도업시 나날이 협의하여가든 시집사리의 풍파는도더히 그대로 살아갈수가업슴으로 시집간지가 불과일년이 못되야 자긔친가로 도라와서이래이면동안이나 뜻아닌 생과부노릇을하고 잇던중마참내는 쏫피는아참과 달뜨는저녁에 안타까운홍청을 이기지못하야 엇더한남자와 비밀한관계를 매커오던것이 원수의열매가 되엿슴으로그는 엇지할수가업시 옷소배 남의이목을 숙이라는 작정으로 덕천군잠도면(德川郡蠶島面)에 사는자긔친척의 집에가서 지난(二)일오전에 임개옥동을 출생하 달초순에 덕천등 사는 현모 경찰서에 발각이되야 녀자는경찰의조사를밧고 그어린 아이의 아비되는사람이 동군북창리(北倉里)에사는진모(秦某)인 것이 들어낫슴을 붉고하고 진모는아모도승거업는 일이라는 어리석은생각을하고 자긔는 아모관계가업다고주장한다더라(맹산)

京城府尹의새頭痛

每日萬餘石의糞尿와 한강에배태울가그게로말려볼가

경성부민의 배설하는 대변과소변을모아두는류지(溜池)가한편이문어커서 그더럽은분료가 청계천(淸溪川)과또는한강(漢江)으로흘너드러가서 위생상에 극히해독을 끼치게되는이째에 경성부에서는 최근에이르러 매일 일만이천석이나 생기는 거름을 어커치하기에 새로운 두통거리가 생긴모양 이라는데 종래는날마다이가치만히 생기는 거름을거우경성시내로부터 삼십리 내외에잇는 일반농가에 팔아버리든 것이엿슴으로 항상 거름의삼분의이가량은 그대로 남아잇게되야할일업시 그것만은 못을파고 그곳에 모아두엇든것이 일천에 한편이 터지서 그와 가치 흘너나린것이나 이케이르러 다만소극적 방법으로지금터진 곳만을 수리하야 응급치료를 한다하야도역시 압흐로도점점거름은 만아질수박게 업는현상임으로 경성부에서는특히 이번긔회 에분료처치의

◇근본방침 을연구하야엇더한형식으로 던지완전한 처치를 취하지아니하면아니 되게되엿다는데 위선화학뎍(化學的)으로그게장치로써거름을말려두는방법을연구하거나그러치아니하면 종래보다 거름의판로를 확장하야 한강의배편을리용하야 가지고멀리 한강상류(上流)와밋 하류(下流)에잇는각 농촌(農村)에배급하는 수밧게는업게되엿다더라

變裝한佐野一派

돈하에들어왓다? 헌병경찰경계

일본공산당(日本共産黨)사건의 관계자 좌야학(佐野學) 황면한촌(荒畑寒村) 근등영장(近藤榮藏)등 삼씨는 그동안 종적을감추어 로서아방면에서 일본공산당원으로 활동을하며 오든중이더니 최근에이르러 퀸긔삼씨는 교묘하게 변장(變裝)을하여가지고 해삼위를 출발하야 돈하(敦賀)에 상륙하엿다는 소식이 잇슴으로 돈하경찰당국과 헌병대(憲兵隊)에서는 험령분하며 가지고 엄중한 경계를하는중이라는데 특히돈하에서 거행되는 이번륙군대연습에는 섭정궁(攝政宮)뎐하께서 행계하는터임으로경계가비상하다더라(동경뎐)

清津開催中인 北鮮共進會火災

손해와발화원인은조사중

오일오전 한시경에 공진회데이회장산관(第二會場新館)에서불이나서신관과경성관(鏡城館)공진회사무소(共進會事務所)경찰관힐소(警察詰所) 소방힐소(消防詰所)등이전소하고오건두시에진화 하엿는데 손해와발화원인은 방금조사중 이라더라(청진뎐보)

◇原因失火、損害五千圓 = 청진공진회의화재사건은 별항보도와 갓거니와 불이난원인은 경성관(鏡城館)의간시인실(看視人室)에잇는 화주에서나서 맛춤 바람이맹렬하여그가치타버린것이며 손해는약오천원가량이오 오는팔일아츰싸지에는공사는복구되리라더라(청진뎐보)

暴風으로日本館崩壞

일본출품이만히손해는거액

사일오전부터 청진공진회(淸津共進會)의 데일회장(第一會場)인 순조선식의건물 일본관(日本館)이 심한바람에 부허커버렷는데 동관안에는 일본서 보내인 출품이만히잇슴으로 일본해가 막대할모양이라더라(청진뎐보)

日本海賊公判

삼년만에오일부터

강련력일랑(江連力一郎)외삼십사명에 관한 강도살인피고사건의데일회공판은 이래삼년동안이나 그커잇다가 오일부터시작하야 오는팔일까지 사흘동안을 계속하야 진행되리라는데 사건이 사건으로 피고 측의 변호인(辯護人)만 하야도 오십여명에 달함으로공판은 동경공소원(控訴院)대법정에서 개정되리라는데그날에는 일즉이그자 들이가지고북해(北海)파도중에서쩽의(掠奪)를발휘 하던온갖 괴품들도일체히 중거품으로 낫하나리라더라(동경뎐)

高敞에强盜橫行

내출동안에군대서강도소동

고주인을 붉더내엿스나 주인은 미리알아차리고 도망하야 마을사람에게 알린결과 그대로도망하얏고 또 그이튼날밤중에 성송면무송리 경희선(星松面茂松里)… 에양복입은 강도가드러가서 주인을협박하다가 그대로 도망한원이엇섯는데 지난달 이십구일 다더라(고창)

痴情은칼부림

에나타난 칼가진강도라팔룡(羅八龍)(二○)은고창서에 데포되엿 … 파파해자는 그곳백번디에 잇는 벼여오단연(吳丹延)(三○)이란녀자인데 종시도지아니함으로 분 … 데단연이는 삼년전부터 …

兩閔을걸어

… 閔泳徽 … 민병주(閔丙疇) … 파산선고신립(破産宣告申立)을경성디방법원 민사부에 …

不平 投書歡迎

신녀성은왜?

구원사일에 개벽사로 신녀청와 『어린이』를구독코자 돈오십전을 보냇더니『어린이』만보내고 신녀성은지금싸지안보내주길래 그후에엽서로몃번더 하엿스되소식이업스니엇진셈이오(읍산독자)

조사해보겟소

그런일은 업도록주의 합니다만은조사해보고 사실그러면 즉시 보내겟슴니다(개벽사원단)

◇휴지통

▲이야기는좀더렴지만은 경성부에서는 매일경성부민의 대소변 일만이천여석을 엇더케처치할지를몰라 큰걱정이라한다 ▲거름의판로를 더욱확장하야 하로밧비 처치할 구케책을 연구하여야 위생비버이는 부민이견되일것이 아닌가▲ 청진에서 개최중인 북선공진회의 『일본관』이바람에 쓰러졋다든가 ▲엇더케 굉장하지은 『일본관』이기에 부는바람에 쓰러젓든가 ▲만일 『일본관』집은튼튼한데 바람이몹시 불어서문허젓다면▲당당한『일본관』을몰라보고함부로불어온그바람은불령바람(不逞風)이니 사단(師團)을 증설(增設)하야 바람의 횡행을경계하여야겟군

千態萬狀

◇鳳山에소동 … 봉산군 구연면합증리(鳳山郡龜淵面…里)전신태(全信泰)의 집에 지난이일 오후열두시경에 잇러자가드러가서 일백 이십여원싸리소한머리를 쇠러갓다는데 그곳주재소에서는 범인을 수사중이라더라(사리원)

◇맹산군수 평남맹산군수(平南孟山郡守)로 잇든 안덕과(安德基)씨는 재근당시에 관비도읍장하야 외상으로 유치등을 먹고 지난달에 충북보은군(忠北報恩郡)으로 전근되야 갈쌔에도 돈을붙지안코 헤미미어 다고일반은분개한다더라(북창)

運動界

自轉車競走

경성륜우회(京城輪友會)주최인 조선추기자전거경주대회는 사일부터 이틀동안 장충단공원운동장에서 거행하엿는데 참가선수는 각디방을통하야 백여명이며 사람으에서몰리치고 작오일에 결승이 잇섯다더라

少年蹴球大會

자하청년회(紫霞靑年會)주최로데이회 소년축구대회를 오는 십루일부터 이틀동안 휘문고보운동장에서개최한다는데 신청기한은 십사일싸지요 신청장소는 중학동(中學洞) 십이번디 동회관인데 기타 자세한것은그회관으로 문의하기를 바란다고

幼年野球大會

필운(弼雲)운동구락부주최의 전조선유년야구대회(全朝鮮幼年野球大會)는 작오일 오전렬한시경부터 경신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리엇는데 참가단데가 여섯단데로 키유에 근역데육부(槿域體育部)와 신진운동부(新進運動部)가 비긴하야 삼대영(三對零)으로 근역데육부가 이기엿다더라(오후한시경)

講武館競技授與

시내 락원동(樂園洞)에잇는유도장강무관(講武館)에서는지나달중순에 뎡긔홍백시합(定期紅白試合)을거행한결과 이단후보(二段候補)무사만파승단(昇段)후보한사람을 비이고 그외에갈 남진급자 삼십여명이나 되는데 승급식은 금일오후 여덟시에 승급수여식(陞級授與式)을거행한다더라

◇謹告▲

去九月二十八日火災에罹하야本店이燒失되엿스나株主及諸位의 …

染料 散卸 賣賣

一、染料原料
一、石鹼粉類用染料
一、明礬品各種

京城府樂園洞一番地
李鍾善染料廠

寫字生 地方副業好個… 前川商會 大阪南區大王寺町 三友社

文雅堂印刷部 主 張錫璐 崔元燮

本社에서 … 營業 … 科目 … 京城仁寺洞六十三番地

專賣區域 京畿道 黃海道 江原道 咸鏡南北道 日本各地

營業品目 眞梳各種、改良簾各種、皮竹箱子、五合花籠、其他竹製品等

京城府鍾路三丁目八十五番地
合名組合 **同德社營業部**
電話光化門八九七番 振替京城二三八八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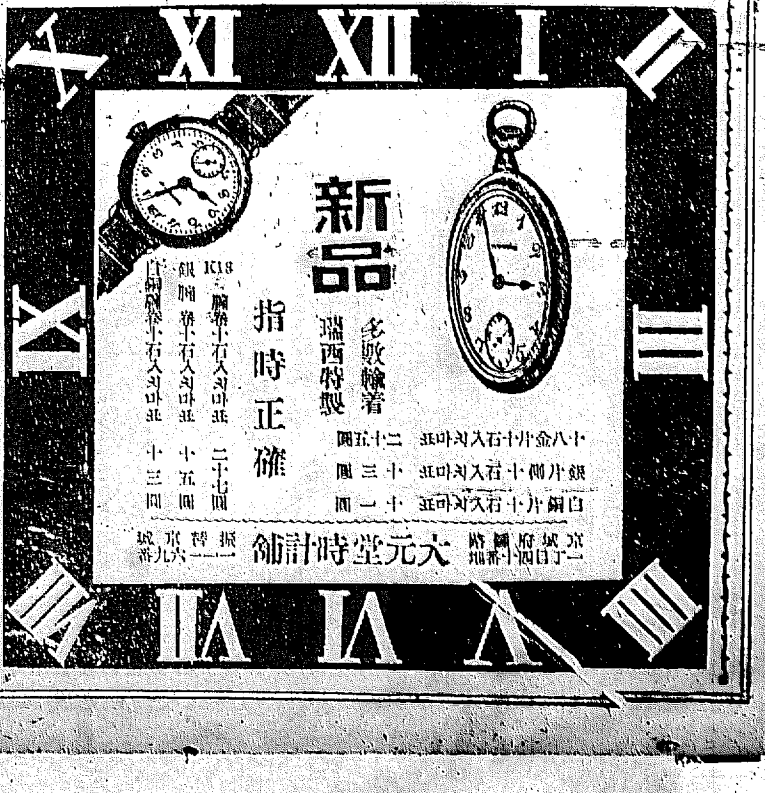
店務擴張特價販賣 新貨多數到着

◇電話開通 光化門三八八番

理髮機械ー器具・木工土工用其他一般家庭用모든金物類와鼎、鍋、酒瓶子其他各種洋銀・法瑯器類・刀類・裝飾金物具備

電話로下命하시면即刻配達

京城鍾路二丁目(普信閣前)
㊈ **吉川金物支店** 主 裴明協
振替京城一〇九七〇番



ClibPDF - www.fastio.com

LA DONG-A ILBO.

SEOULO, KOREUJO, LUNDO, OKTOBRO, 6. 1924.

KATO KAJ HUNDO.

KOREA FABELO.

"Ĉu vi havas la kruĉeton en via buŝo?"

"J-e-s, jes." respondis la hundo, sed, ho ve, kia malfeliĉo!, li elbuŝigis la kruĉeton en la akvo pro la responda vorto "Jes".

Granda domaĝo kaptis ilin en la koroj, kiam ili konvinkiĝis, ke la kara kaj mistera kruĉeto estis forsubakiĝita el la buŝo de la hundo pro la malbenita respondo al la kato. Ili plu nenion povis diri unu la alian, konfuzinte, kiel ili povas fari, kaj kiel eterna muta kaj malluma ŝtono ili devis tenadi silentegon ĝis ili alvenis al la riverbordo. Kiom da malfacila penado kaj laborado prenis ili por redonigi la karan kruĉeton, kiun la gemastroj neniam volis forelmanigi!

Finfine ili alvenis al la bordo kaj rapide surbordiĝis: hundo kolere kaj insulte malbenis la katon pro troa bedaŭrindajo neredonigebla, ke li estis troa venta animo, li ne tenadis la promeson dum li estis transnaĝantaj la riveron kaj ke ili ne havis fidelecon por revidi iliajn gemastrojn. La kato kore petis de la hundo la pardonon, dirinte, ke li estis nepardonebla, sed memoru, ke ĝi ne estis lia propra intenco, kaj forkuris, ĉar li ne povis ne senti hontegon en sia koro.

Vagante sur la dezerta riverbordo la bona hundo enpensis kaj enpensis, ĉu nenia rimedo estas por reenmanigi la kruĉeton.

"Mi ne povas reveni al la domo," la hundo diris al si, "ĉar mi refoje perdis la karaĵon. Kiel la mastroj bedaŭros, se ili aŭdus, ke ni hazarde e'buŝigis ĝin! Jes, vere, malbenita estis la respondo! Kiel li kuraĝe demandis al mi pri ĝi dum ni estis transnaĝintaj sur la rivero! Neniam mi pardonos al la kato la kulpon."

Vesperiĝis kaj mallumiĝis, sed ankoraŭ li ne volis reveni al la domo. En la domo la mastroj vane atendis ilin.

De tiam la kato kaj hundo malpaciĝis kaj malamis unu la alian.

Kiam ajn ili intervidis, "kang, kang! kial vi demanddis al mi pri la kruĉeto, promesinte ne diri eĉ unuvorton?" Kriis la hundo. "Miŭ, miŭ! mi ne faris tion intence, ne kulpigu min," respondinte la kato forkuris de antaŭ la hundo.

(fino.)

에쓰페란토欄

고양이와개이야기 (終)

中央版

開城郡圖書館 來八日에 開館될 듯

開城郡에서 圖書館을 設置한다 함은 數次報道하엿거니와 最初에 經營으로는 南大門樓上에 設置하려 하엿스나 事情에 依하야 前憲兵隊官舍로 結定된 以後 諸般設備를 着々進行中 近日에 至하야는 準備가 거이 完成되여가며 書籍購入된 것도 二千餘種에 達한바 來八日頃에는 開館이 되리라고(開城)

開城各種稅金 一人平均負擔 二圓八十五錢

開城松都面에서 十二年度에 各種稅金으로 收納된 것을 見하면 市街地稅 一萬七十四圓 家屋稅 一萬六千四百三十四圓 酒稅 二萬九千三十圓 煙草稅 一百十圓 驛屯賭 一千九百七十七圓 市街地稅附加稅 二千六百七十八圓 市場稅 四千五百二十一圓 屠場稅 四千五百二十二圓 賦課金 四萬八千六百四十九圓 合 十一萬七千六百九十四圓인대 此를 戶數 八千五百二十九戶에 平均하면 一戶에 十三圓七十八錢二厘強이오 人口 四萬一千七百九十五人平均으로 見하면 一人에 二圓八十八錢一厘強이라고(開城)

柾峴客月業績 前年과의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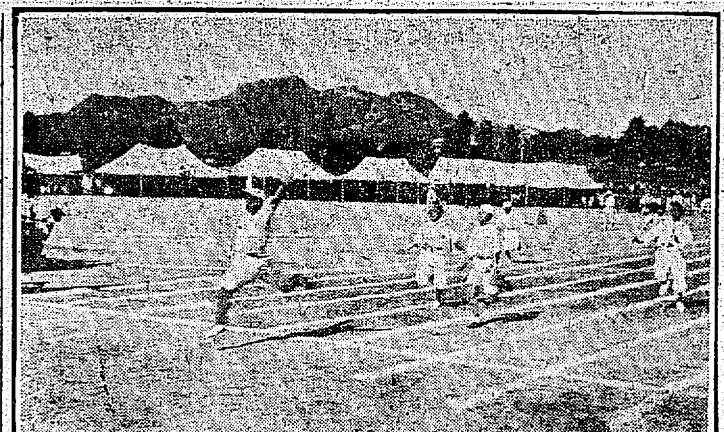
京仁線柾峴驛客月業績과 前年同月과를 比較하면 左와 갓다고

今年九月中	
乘車人員	三九,〇一九人
降車人員	四〇,七五六同
入場人員	二,六四八同
小荷物斤量[發]	一七,一八九斤
同[着]	四一,五一一同
大貨物噸數[發]	三五一噸
同[着]	四五七同
客車收入	二四,九八三圓七二
貨車收入	二,四三〇,九八
昨年九月中	
乘車人員	三九,四二六人
降車人員	三九,一五五同
入場人員	二,四五三同
小荷物斤量[發]	八〇,八三五斤
同[着]	四二,九四四同
大貨物噸數[發]	四七二噸
同[着]	四五二同
客車收入	二六,二〇一圓五八
貨車收入	二,〇五七圓九〇
增減比較	
乘車人員	△四〇九人
降車人員	一,六〇一同
入場人員	一九五同
小荷物斤量[發]	二六,三五四斤
同[着]	△一,四三三同
大貨物噸數[發]	△一二一噸
同[着]	五噸
客車收入	△一,二一七圓八六
貨車收入	三七三,〇八

(仁川)

開城文廟司成 開城

開城文廟司成人選을 爲하야 一般儒林의 輿論이 藉々하더니 去九月二十九日付로써 孔聖模氏가 被選되야 去三日에 當郡廳으로부터 辭令傳達이 有하엿다고(開城)



◇교동공보운동회

南陽公普運動 水原郡

南陽公立普通學校에서는 좀도덕이 아니한 此際를 利用하야 오는 十五日에 秋期大運動會를 開催한다고(南陽)

竊盜,橫領,僞造

죽첨정(竹添町) 삼뎡목 백삼십구번디 리봉률(李鳳律)(二八)은 시내 모운송뎜(某運送店)에 사무원으로 잇든 일본인 소도(小島)와 공모하야 가지고 본년 륙월경부터 시작하야 이래 오륙처나 되는 각 운송뎜으로 도라 다니며 여러가지로 부정한 행동을 계속하야 오날까지 합계 오백여원 어치의 절도(竊盜) 횡령(橫領) 위조(文書僞造) 등의 범죄를 범한 것이 요사이 서대문서에 발각되야 현재 인치 취조를 밧는 중이라고

寬勳洞에 小火

작일오후 오시 오십분경 시내관훈동(寬勳洞) 백삼십일번디 홍순헌(洪淳憲)의 집 굴둑에서 불이 나서 집웅에 올라 붓는 것을 그 부근 파출소 순사가 발견하고 즉시 동리 사람들과 합력하야 꺼버리고 말엇다고

開城戶口總數 開城十二萬七百

開城郡內에 居住하는 戶口數는 二萬三千九百九十三戶 十二萬七百四十六人인데

朝鮮人 二三,四一八戶 男五八,九七六 女五九,八九
日本人 四六四戶 男八八二 女八四五
支那人 九七戶 男一〇 女三
米國人 一四戶 男一七 女二六(開城)

秋期種痘施行 水原郡

陰德面에서는 오는 八日에 秋期種痘를 施行한다는데 春期外지는 種痘醫員이 實施하엿고 今番은 南陽醫院公醫 藤元容氏가 南陽里에만 限하야 實行한다고(南陽)

開城秋期淸潔 開城市

內秋期淸潔日字는 左記와 갓다고
十月七日 太平町,大和町,西本町,南本町
同八日 南山町,宮町,京町
同九日 北本町,滿月町
同十日 池町,高麗町
同十一日 東本町,元町

◇版外消息◇

光陽勞農 第二定期總會 九月三十日에 無事進行

全南光陽郡勞農聯合會에서는 第二回定期總會를 去月三十日午後四時同會臨時會館內에서 開催하고 臨時議長鄭晋武氏의 司會로 左記事項을 決議하엿는데 當日出席한 各處代表四十餘人의 緊張한 態度와 安基先, 辛命俊兩君의 熱々한 感想談은 一般에게 深刻한 印象을 주엇스며 同九時頃에 無事히 閉會하엿다고

決議事項
가. 小作料定賭에 關한 件
나. 宣傳委員選定의 件
다. 地稅公課金에 關한 件
라. 郡農會에 關한 件
마. 拘禁幹部救護에 關한 件
바. 發事部設置에 關한 件
사. 其他事項 (光陽)

萬餘戶의 食糧不足 金堤郡의 慘狀

全北平野의 中心에 處한 金堤地方은 數十年來稀有의 旱害를 맛나 窮民의 生活狀態는 이로 形言키 어려운 現狀인데 同郡廳勸業課에서 調査한 바에 依하면 被害戶數는 農家總戶數의 七割六分이나 된다하며 그들의 食糧不足數量은 約 一萬七千五十三石이라는데 各面別로 본 被害戶數는 左記와 갓다고

面名	農家總戶數	被害戶數	食糧不足戶數
金堤面	一,二七七	一,二五五	九三二
月村面	一,〇九〇	九七〇	七八〇
竹山面	一,一〇五	一,〇〇〇	九〇〇
白山面	一,二四四	一,〇〇四	八二四
龍池面	一,三〇四	一,一七〇	九〇〇
白鷗面	一,四八五	一,三一五	一,〇六五
扶梁面	七六五	五〇〇	四〇〇
萬頃面	一,一七一	一,〇五〇	一,〇〇〇
孔德面	九〇〇	八〇〇	八〇〇
靑蝦面	九六九	九五〇	七五〇
聖德面	八六六	七〇〇	六〇〇
進鳳面	九九九	八三〇	七六〇
金溝面	一,一六六	一,〇一〇	七九〇
下離面	一,一四一	九四一	八三一
變坎面	九七六	八六六	七九〇
水流面	一,〇〇一	九〇〇	四〇〇
草處面	六三三	四四一	三九六
合計	一七,八四二	一三,八五五	一一,四三二

學界에 大影響 缺席과 退學

金堤旱害의 農家에 미친 慘狀은 別項과 如하거니와 지난 九月十日 現在 同郡各公普生徒들의 出席狀況을 보면 在籍生總數가 二千五百名인데 出席生이 二千三十五名이오 缺席生이 四百六十五名인데 其中 退學한 學生이 一百五十三人이나 된다는데 이것은 모다 旱害로 因하야 그리된 것이라 하며 各學校別로 보면 如左하다고(金堤)

金泉郡 物産品評會 準備에 奔忙

旣報한 바와 가치 金泉郡外 三郡聯合重要物産品評會는 來十一月十日부터 同十六日外지 一週日間을 繼續開催할터인데 會場은 農産館, 工産館, 園藝館, 參考館, 賣店館, 來賓館, 特設館, 計量展覽會館 即 賣館, 演藝館, 敎育品展覽會館 十一個所로 分設하기로 決定하야 去三日午後一時에 當地郡廳에서 設備工事를 請負入札에 附한 結果 一千九百六十圓의 最低價額으로 落札되엿다 하며

• 金泉協贊會準備

別項과 가치 重要物産品評會는 來十一月十日부터 開催될터인바 此 開會同日에 金泉郡協贊會도 開催할터인데 協贊會의 工事業은 左記와 갓다고 南鮮畜産技術品大會, 新聞記者大會, 敎育品展覽會, 美術品展覽會, 計量展覽會, 佛敎大會, 庭球大會, 各種作業實演, 白日場, 京城妓生演舞, 藝妓演舞, 素人劇, 脚戲, 鬪鷄, 競馬等(金泉)

道路競進會와 孟山郡民의 慘境

平南道廳에서는 道路競進會라는 것을 主催하야 道路를 修築하고 砂石을 펴는 等 一戶平均 四五日의 夫役을 出動케하고 오히려 不充分하다하야 또다시 出動을 식키엿는데 갓득이나 今年旱災로 凶年이 들고 먹을 것이 업서서 機餓에 헤매이는 中 若干 穀物이나마 收穫을 할 겨를이 업서서 孟山一境은 愁惱에 싸이엿다고(北倉)

數百洞民 示威運動

安康水利組合反對로

旣報와 가치 慶北慶州安康水利組合反對派 霞谷, 江橋兩洞民 數百名은 去一日에 江西面各洞으로 巡廻示威運動을 하는데 압헤는 宣言書의 旗발을 날리며 多數의 群衆은 殺氣騰々한 態度로 組合反對歌를 高唱하면서 進行하다가 夕陽에 安康市外지 와서 無事히 解散되엿는데 水利組合側은 無變한 苦痛을 感한다고(浦項)

京城圖書館廢止 에 對하야

自由鐘
◇投稿規定◇ 一行十四字 五十行限 ◇原稿에는 住所氏名을 必記하되 發表할 때에는 無名이나 匿名도 無妨함 ◇本社 自由鐘係 ◇皮封에는 「自由鐘原稿」라 朱書를 要함 ◇投稿歡迎◇

◇世界의 思潮는 나날이 우리로 하야금 夢殼을 打破하도록 催促을 不已한다 이는 곳 新知識의 波動이니 果然 知識은 偉力이오 權威다 世界大勢에 너머나 뒤진 우리로서는 엇지 一刻일지라도 虛送浪遊할 수 잇스랴 어서어서 발 벗고 研究하여야 될 것이다

◇朝鮮人의 經營으로 京城靑年男女의 唯一한 讀書機關이든 京城圖書館이 이제 經費困難으로 維持하야 갈 수가 업서 廢館이 되엿다 한다 아—슬푸다 엇지 이다지도 우리 生活은 모조리 쓸々하고 悲慘한 것뿐인가 우리 事業이란 무엇하나가 完全히 오이한 個의 圖書館의 運命外지 維持를 못하고 破滅을 不免하니 이것이 우리의 生活을 表徵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보라—날々이 물미듯 滿員의 盛況을 일우든 그 圖書館이 아니엿든가 그만은 入場者 即 求學者에게서 硏究할 機關을 빼아서 바리니 얼마나 慘酷한 일인가 이도 大한 民衆讀書機關의 廢止케됨으로 因하야 無形의 損害는 可히 數字로 計上치 못할 것이다 各方面의 高壓的 環境은 숨 쉴 틈 업시 破滅의 雰圍氣에 窒息하지 아니할 수 업는 우리로 하야금 무엇으로 써 살아갈 計策을 圖謀하라

◇오—富豪여—志士여—血淚가 躍動하거든 君等의 義憤心을 發揮하라 엇지 圖書館에만 限하리오만은 君等의 熱情이 잇다하면 날々이 荒廢하야가는 우리 社會를 爲하야 圖書館을 살리기를 바란다(李津)

平壤新義州間 直通電話利用不遠

京城奉天間直通電話의 第一步인 平壤新義州間의 直通電話는 平壤新義州兩局에서 若々工事를 進行하는 中인데 平壤郵便局工事擔當 美以南은 四日에 竣工하얏스며 以北은 目下繼續工事中으로 來十三日에 竣工할 豫定인즉 來十六日頃에는 同直通線이 一般加入者의 通話에도 利用하게 될터이라고(平壤)

延白郡에 牛疫

每日斃死三四頭 人心이 매우不安

黃海道延白郡鳳北面院東里光東里에는 近日牛疫이 發生하야 每日 斃牛가 三四頭式 된다는데 目下秋耕期에 止息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蔓延하면 農家의 大恐慌일으로 人心이 不安하다고(延安)

質疑應答

一, 質疑는 日常生活에 關係잇는 事에 限함
一, 應答은 總히 本紙에 發表함
一, 質疑는 葉書에 必히 朱書로 「質疑係」라 明記함을 要함

【問】 甲의 집과 乙의 집의 相距가 四間假量인데 甲이 製粉機를 設置하고 日夜繼續作業함으로 機械의 소리가 擾亂할 뿐 아니라 乙의 집이 흔들려서 崩壞될 念慮가 잇스니 乙이 甲에 對하야 機械移轉을 請求할 수 잇슴가요(平壤 一問生)

【答】 自己의 建物內에 自己의 製粉機械를 据置하고 作業하는 것은 權利의 行使即 適法行爲가 되지요 마는 이 適法行爲가 엇던 程度를 超越하면 權利의 濫用即 不法行爲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貴問과 가튼 境遇는 權利의 濫用이라 하겟습니다 乙이 甲에 對하야 同機械의 運轉中止又는 移轉의 請求를 할 수 잇습니다(辯護士 崔根祚氏談)

今古詩叢 (投稿歡迎)

讀東亞報。有非兒寄姪詩二首。遂步原韻。以示贈姪。 茂亭
仍祝淵說初度。
年來親我太淵客。只向同堂此眼靑。鵑斷木川中歲別。夢殘花樹落時亭。弟兄相對憐依膝。子姪能勤喜拾螢。每歡先人遺業序。文星偏照我家庭。

又
淵翁七袞得孫遲。看笑嬉啼不暫離。初度衣兒出叢。清晨湯餅客如期。當徵千畝收不簡。壽占拆陽飲菊時。一祝爲家乘寫圖。染臺讓到鳳凰池。

◇天氣豫報 晴一時曇
溫度 昨日正午 六八 / 再昨日最高 七一 / 昨日正午 七二
濕度 昨日正午 七六 / 昨日正午 八二 / 六二

美人의恨 四十 柳雲人譯

무슨 연고로 다만 한마듸 청다운 말을 하야 공작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지 안는가 다만 한마듸로 공작은 얼마고 그런을 내버리고 혜린의 수중에 굴러 드러 올터인데 아 혜린은 영화의 길을 놋치려 함이냐? 혜린이가 마이려나 려고 함께에 공작은 얼골을 붉히어 산악이 압헤 뭇허질지라도 놀라지 아니 할만한 단연한 어조로

「아니 혜린씨 당신의 말슴은 고의의 시악하야 보앗스나 당신네에는 조곰도 더러움이 업슴니다 이만한 욕을 보앗기에 물에 떠러지는 당신의 말을 알겟슴니다 이후에 엇더한 욕을 당할지라도 결단코 그 곳에 더러히 아니하것다는 것이 로 굿나흔 어린 아해보다 더 이 맘다는 것은 당신가튼 사람을 두고한 말입니다」

하고 진심으로 쏘다 질러 말함으로 혜린은 사면초가중에 오직한사람의 구세주를 어든 것 가치 무한히 고마움에 부지중 공작의 손을 잡고

혜린은 다시 공작의 손을 잡고 「네— 당신 안해가 되여 드리겟습니다」

「아니 이것으로써 인제는 이비밀을 당신이 든지 나든지 아모에게도 알게 하여서는 안되겟슴니다 이것이 부부 약속한 아조 처음이 되엿스니 공작은 무한한 것 같이 뛰놀엇다 혜린은 아녀 아모리 한가지 경험 업는 일이라도 당신 뜻에 맛게 하겟습니다」

「아니 그것만은 맘 할 수 업슴니다 평생에 이것 밧게 내지 아니하랴고 내 맘에 맹세를 하엿스니—」

「그러면 아모리 청을 하여도—」

「네— 그사람의 일홈은 케이의 로말하는 것은 제 홀몸 뿐이요 그러치 안커나 무엇보다도 데리다는 것과 가라서 리운 즐로 아닌가 겁 다 그 일홈은 말하지 아니하겟습니다」

혜린은 분명히 거절하니 공작은 유감에 ...

「정말 그럿케 말슴해주서기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하니 공작은 이 한마듸에 정신이 황홀하야 오직 혜린을 사랑하는 마음이외에 아모 생각도 아모 뜻도 업다

「아니 혜린씨 당신은 이세상에 지 보호하야 주는 사람이 업섯기 때문에 악마의 유혹을 바다 사회의 공을 잘못 드러갓다고 하겟슴니다 이후부터는 내손에 매달리어 정당한 길로 다시 도라오셔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명분은 충분히 당신을 보호합니다 어떠케지 청공작부인이라면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한번 한일이 업슴니다 청공작부인이라면 세상 사람은 그 리려도 못지 아니하고 청공작부인이 된 사람이 너가 밧들어 청공작부인의 귀하다고 그리케 생각합니다 공작부인의 디위는 모든 조소와 모든 더러움을 초월하야 잇는 것입니다 이 세 지의 당신의 신상일은 누구에게 말하든지 조곰도 붓그러울 것이 업지마는 그렇지라도 평생 내입밧게 내지아니하겟슴니다 인케는 아조 사라저버린 비밀입니다 당신도 결단코 내게 토파한 것을 후회하실리는 이후에 업스리다 자—인케는 이 일 키일이 결뎡되엿슴니다 당신네 당은 엇더십닛가 내 안해가 되여 주시렵닛가」

「일흠 업는 나의 결혼가 불가」 외수는 온 슴슬허 하다 혜린은 「철될수업는 공작은 거 얼골빗을 변하야 「당신의 원수는 인케는 내 원수와 일반입니다 그런자를 차커 내여 충분한 벌을 주어 이세상 에 살 수 가 업도록 하고 십습니 다」

「그말은 고맙슴니다 마는 맘의 맹세를 깨트릴 수는 업습니다 타일 원수를 갑흘 때가 잇스면 제가 갑겟슴니다」

공작은 혜린의 말이 아조 견고한 것을 보고 더욱 그 심이 있는 녀자인 것을 보고 더욱 에게도 붓그럽지아니할 일개결 부고 맘이 만흔 녀자이라 이에 감동되여 오직 얼골이 어엽 한데 더욱 감심 할 뿐이로다 그일 이 나의 생명은 아니하고 자기의 복수 을 사례하엿 할 뻬가 갓가워온 것을 사례하엿 다 녀자평생의 출세는 오직 그주심에 달렷다 주심이 조치 못하기 때 문에 출세할 계단을 헛드되어 다 시 여오를 수 업는 사회의 맨 밋층 에 잠긴 사람이 몃 사람인지 모른 다 혜린가튼 사람은 몸에 무서운 비밀이 잇스나 그 오직 가슴에 잠 겨 리 려이 업시 너자로서 세상 에 그 흐림이 업슴 만한 주심을 가젓습으로 몃 만명부인이 희망하여도 어 들수업는 청공작부인의 지위에 지출세를 하엿다 할가?

創作 無限愛의 金像

靑春과 사랑과 죽엄!

애타는 서름과 꼿피는 幸福!

出版當日에 五百部賣盡!

이러케 熱然히 歡迎을 밧음은 무슨 세닭인가? 그것은 녹어야 할가? 우서야 할가? 多情多恨한 作者가, 靑春에 설어하고, 사랑에 헤매이며, 人生에 한숨쉬는, 저주와 無情에 피눈물로써 全篇을 通하야 現代우리 젊은이들의 설음을, 유감업시 그려낸, 朝鮮初有의 一大創作物인 싸닭!

朝鮮初有의 新形菊版 美本 / 頁數 三百頁 / 紙質 白模造上紙 / 一部定價 金壹圓五十錢

春城 盧子泳 作

‖內容紹介‖

無限愛의 金像

사랑과 階級과 죽음!—千萬圓의 財産을 가진, 尹男爵의 아들 泰榮은, 그 아버지로 인해의 主義者이엿다 白丁의 딸, 朴姬貞과 꼿가치 피고, 구름가치 흐르든, 어엿븐 사랑에 싸지게 되엿스나 그러나 尹男爵은, 百方으로 反對를 시작하엿다, 무사랑의 運命이 이러나게 되고, 따라서, 여러가지 曲折을 지나, 두사람은 自殺을 하엿스며 그나 尹男爵도, 自己의 잘못을 후회하고, 그의 부인과 한 번 白髮하는 一百여頁이나 되는 無情과 悲哀의 長篇小說

꼿피는 處女

봄날에 눈떠는 處女! 多情하고 재조만흔 處女는, 人生에 키유으로 피려는, 어엿븐 사랑에 울고 헤매이다가, 필경은 詩人이오, 少年美術家인 그의 愛人을 따라 元山松濤園에 가서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八十餘頁의 中篇小說

天使

山水조흔 釋王寺! 咸樹長林에는, 月色이 무르녹고, 그속에는, 啣국새가 우는 釋王寺속에서, 엇던 天使가치 어엽븐 音樂家와, 또는 엇던 天使가치 사랑스러운 美人이며, 釋王寺를 背景으로 하야, 眞珠가치 곱고 玉가치 아름답게 쓴 七十頁의 中篇小說

죽음의 勝利

사랑을 위하야, 毒藥을 먹은 處女! 완고한 父母가 그를 物件가치 딴곳에 婚約을 하엿나니, 永遠한 理想에 경이 가넘어는 그의 마음, 一그 處女의 最後 운명은 엇더한가? 一人이 모여 듣고 그의 父母가 들어 안키, 그 處女의 最後운명을 설어하는 눈물로 피눈물을 붓는 悲劇이다

總發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振替京城七六六〇番

十月二日(木曜)부터 提供 優秀名畵大公開

大活劇 보리안나 十卷
俠一徹 全五卷
대활극 베루벳드 全十五篇 三十一卷中 第五回 第九篇 第十篇 四卷上映
스산나
베루벳도
사록구흠무스
嚴窟王
朝鮮劇場 電話 二〇五光

◎十月五日부터 ◎二大連續大會 ◎
幽靈財寶 全十二篇 二十四卷 第四回 第七篇 第八篇 四卷上映
리지움의 秘密 全十八篇 三十六卷中 第二回 第三篇 第四篇 四卷上映
우이리엄텔 全七卷
名馬一鞭 全七卷
電光石火 全五卷
支那上海戰爭實況
團成社 電話 光九九九

脊髓病 — 發賣元 ... 京城府南大門通 ...

無窮花

何夢 李相協 作 (菊版全一冊 定價金 ... 送料 ...) (頁先金)

보시요! 其間絶版이 되여 여러분에게 苦心하시든 無窮花는 再版出來하엿소

무궁화! 무궁화! 우리의 귀에 얼마나 정답게 들니우던 「무궁화」 이 세 자가 얼마나 우리의 귀에 익숙한 일홈이냐 ... 무궁화는 또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다 「무궁화」의 형은 웃음과 눈물의 반생이오 ... 사랑의 힘으로서 무궁화! 무궁화!—네 일홈을 불으면 우리의 가슴은 ... 「무궁화」의 작가 하몽선생의 붓으로 ...

發行及發賣所 京城蓬萊町一丁目八八 振替口座京城二〇二三番 博文書舘
同 京城堅志洞六十番地 振替京城八二五五 朝鮮圖書株式會社

土金高價買入 京城府明治町壹丁目 德力本店京城出張所 電本 一一一四 二五七二番 二〇八八

月曜欄

朝鮮學生統一을爲하여公正하라

笑々生

朝鮮學生의總聯合을標榜하고思想統一을宣言하며澎々한氣勢로社會의큰囑望을바다 個人本位이나마聯合의可能을表證할만치忽然六百餘名의發起者된學生會에宣布하고發起會를열게되엿다 이것이곳世上이周知할만한波瀾曲折의學生한學生總聯合會그것이다 字意부터解釋하더라도누구든지學生統一의意味를聯想할것이며또한이러한모임이朝鮮社會를爲하야特히朝鮮學生界를爲하야엇지못할것을生覺케될것이다 分裂을조하하고黨派를일삼는朝鮮社會에잇서서는더욱團結을爲하야共鳴局應할것이며따라서이러한모임의將來를爲하야祝福하며援助할것이다 그럼으로나는學生總聯合發起會를손을꼽아기다렷스며 또한統一을爲하야만흔企待를가젓섯다 然而去九月十一日은即큰使命과屬望을가진發起會第一日이엿다 數百餘名의發起者들은學生統一의使命이至重且大함을深思하며會를進行하엿다 金東洋君이議長이되며點名이잇슨後經過報告에드러가자ㄱ나는生覺지도아니한怪常한問題가이러낫다그것은即旣存團體인學生會와彼此協調的態度를取하엿느냐?함이다 나는그것에는맛도못도모로고但聯合이란글字에魔醉를當하엿고따라서學生會가全鮮專門校生을網羅한團體이고또한聯合會參加會員範圍가中等以上專門校라하엿스니專門校生의集團인學生會와는發言을기다릴것도업시協調的態度를取하엿슬것이라自信하고質問하는者를反히把疑者로生覺하엿다그러나金東洋君은그質問에對答이너무나模糊하엿섯다 다시말하면學生會와는協調의일은始終하고反抗的이엿다 그것은事實이儼然히證明하는바이라한다 金君은學生會主要幹部이다 學生會幹部로學生會를등지고無虎洞中獨作虎로單獨行動을하면다한다 이러한反逆的氣分을가진者에게協調나무엇이나못는것부터잘못이아닌가하엿다 發起者一同은누구를勿論하고그와가티對立的瞰視的엇더한關係團體를組織하려함은엄에도生覺지못한일일것이다 그것은우리의預測이빠르지못함보다學生統一의擧에偏信한까닭이다 못노나여러분이여? 누구인들神聖한總聯合의看板아래에全然矛盾되는偏狹한엇더한「그루프」를組織하려함을알앗스리오! 또한發起者인들엇지神聖한美名을팔아조朝鮮學生을籠絡할줄이야알앗스리오! 나는 金東洋君에對하야무엇이던지하여보것다는 誠心에對하야는感慨를不救하는바이다 또한엇더한일을하던지『鍛之則能成』이란格言을確信하고잇것이다 그러나 일에는公과私가儼然한境界線을지어잇는것이다 私를爲하야는到底히容許할수업게되며따라서成功의良果를엇지못하는것이다 이커나는賢明한金君의公私가公에잇나? 私에잇나?함이疑問이다 萬一이번學生總聯合會를發起한動機가公에잇다하면아니조朝鮮學生의統一되지못한憾으로生覺함이라하면 그커럼紛糾錯雜이發生치아니하엿슬것은明若觀火이다 萬一金君이眞實로學生統一을爲하야 그精誠이學生總聯合會를發起하게外지이르럿다할진대學生會幹部이니 그自體內部에서努力하엿슬것이다 따라서그만한誠力으로擴張向上에努力하엿슬것이다 努力은그程度에따라代償이잇는法이다 協調的態度를取한다고그優越한바아니며獨單的態度를取한다고그優越할바아니다 個人의事業을誇張치아니하고참으로일을爲하엿다할진대隱然中그만한效果를貢獻하엿슬것이며甲論乙駁의內訌外評은맛지아니하엿슬것은贅言을不要할明瞭한事實이다

朝鮮學生된者ㅣ누學生統一機關을渴望치아니하리오 그와가티統一을熱情으로企圖하는發起者中에서도그自體의缺陷을胚胎케되엿다 그것은統一에誠力을傾注치아니하고個人의그무엇을이루려함에잇다 換言하면總聯合의本意와는正反對되는分裂對立을삼은外缺이다 그럼으로學生統一運動이도로혀그運動을破壞식힘에不過하엿다 그問題가導火線이되여 그會場에서問題人物이되여 ○○○君과○○○君은引責退場하자다시紛擾만場內를騷亂하고與滿한統一을爲하야學生會와妥協을힘쓰고커調停委員五名을選定하고無期延期로閉會하엿다 然而又去九月二十日에다시發起總會를열엇다 調停委員의經過報告를들으매 모든것이個人的行動에지나지아니하고正式交涉은오직一度에不過하다한다그나마學生會로正式通知가오지아니하엿고 二十日委員會를지나고通知하겟다한다고ㅣ 報告하엿다 發起者側에서調停委員의게個人的行動함을責하는同時에正式通知도오기前에發起總會를열게됨은何故이냐質問함에 場內는곳修羅場이되엿섯다 그後로는누구던지學生會의態度를注目하는同時에正式通知가오의曙光을바라보며正式通知가오기前에發起總會를여는것은잘못이라主張하엿섯다 그럼에도不拘하고創立總會로하여進行하자는動議再請이多數되야發起總會도마초지아니하고커음보는最新式의創立總會를宣言하고無期延期로閉會하엿다 그會는始終이그러하거니와 나는집에도라와서외지알고십흔것은學生會委員會의決議이엿다 적어도全國最上級學校에屈指人物을아모아決議한다하니 모든問題의解決의曙光을信之無疑하엿섯다 同時에나의머리를괴롭게한것은歷史가皆戒하는過去의偏狹史이엿다우리도先祖의遺孫이나傳統的根性이나 나마잇지아니한가!?아니다이런것을生覺하는내自身부터時代에뒤진사람이로구나하고더욱벼의다름을애다랏섯다 그러나그後에學生會決議事項이이와가티들린다『學生會는旣存團體인데總聯合會는未成團體이라고存在를是認치아니한다고宣言하엿스며學生會를擴張식히려한다』고!! 나는이발을듯을때에우리는永遠히先祖의遺傳인黨派的根性을免할날이업지아니할가?하엿다 總聯合會의發起된動機도不良하거니와그에對하여學生會의態度도同一視하지아니치못하겟다 學生會諸君의게一言을못고커한다 諸君은學生統一을重要視하는가 看板保存을重要視하는가? 나는諸君이그와가티이積極的態度를取할줄은念頭에도生覺지아니하엿다 참으로學生統一을바랏진대看板도무엇보다犧牲할것이다 旣存團體가아니라 幾千年歷史를가진團體라도統一의旗발아래에는融合이되여야될것이다 나는諸君을保守主義者로밧게는볼수업다 諸君이條件的局限된學生會는專門學校生에만局限된것이다 局限된看板을가지고擴張된會名을代表하려함이너머矛盾되지아니한가 勿論諸君은이가티말하리라 會名이同等關係가잇느냐擴張만하야統一만되면그만이라고辯論하리라 그러면所謂統一狀態에잇던學生會의前身인學生大會를生覺하여보라 그後參加會員의範圍가專門校生에만局限될時에縮少의意味가아닌가 이번에學生總聯合會와提手並進치아니하고學生會自體만을擴張한다는것도 實現되지못할空想이다 그러고學生總聯合會의發起動機如何는勿論하고中學生以上專門校生外지集團된것은事實이다 이와가티集團에만努力함에不拘하고自體擴張에만努力함이엇지總者의妄想이아니라하겟는가? 또한諸君은協調性이不足하다하겟다 總聯合側에서는모든것을讓步함에도不拘하고積極的保守策을講究함은朝鮮學生界에亦是不祥事가아닌가 나는구태여더말하지아니한다 統一이란그아래에는모든것을犧牲하라!는말뿐이다 犧牲의代價는完成이다 또우리는어서々々偏黨的根性이업는公正한사람되기를힘써야할것이다 黨派는滅亡의根源이다 (完)

少年軍에關하야

趙喆鎬

一千九百二十二年十月五日은朝鮮에少年軍이 처음으로始作된날이다 即只今부터滿二年前오날이엿다 永遠한生命을가진民族的事業으로보면 가장짧은時日이라하겟다만 사람의一生涯로보면그다지짧은時間이아니다 內容은 如何間少年軍의精神을가지고指導하는團體가거우二十個所에지나지못하고團員數가四百餘에不過하다 우리社會는모든것이다貧弱하고困難하다 그러나 남의나라의急速한發展을比較하야볼때에 너무도잠자는狀態에잇는것갓다 一般同胞에게切實이바란다『百年計가되는우리사람敎育問題中 根本的인이少年軍問題에對한理解와援助를』

다음에 簡單이少年軍에對한말을뭇마듸하랴한다 少年軍의根本的目的은 團員個人의個性에조차 將來의希望잇는職業別에조차서 人格 智識 技術 健康 技能을增進시키자는修養機關이다 그리하야 高尙한『社會公人』이되는것으로主眼을삼는다 그結果는남을爲하야社會를爲하야 獻身하자는것이다 少年軍의指導方法은 現今의敎育과가치 注入的이아니요 各々의個性을完全히發展시켜서人格者가되게하며 實社會事物에나가서 부듸쳐보는團員各身의自發的敎育이다 少年軍은少年서로가 사랑과誠意로서 扶助和合하는愛와誠意의聯合團體이다 團員은兄弟이다 어는나라를勿論하고少年軍은 個性으로부터湧出하는親密한兄弟이다 少年軍은出處가內閣戰爭時에마휘킹이요服裝이또한軍服비스름하고 行伍가軍人動作에依似함으로말미아마 軍國主義의械이니『軍人의種子』니 하는一部人事의非難을밧게된다 이러한問題는어는째 어는나라를勿論하고한번식은반다시 나는問題인것갓다少年軍이 創設된英國本바닥에서드그럿코 米國에서드또한그럿타 露西亞갓흔나라는日露戰爭後國情이 그럿케맨든것이지만 帝政時代에그럿케盛榮하든것이지금은 그다지發達되는것갓지아니하다 그러나조곰이라드 少年軍問題를生覺하야보고 少年軍問題를硏究하야보면 그러치아니한것을알것이다 그럼으로이는다만皮相的觀察者流의 偏屈한言動에지나지 못하는것이다 少年軍의創設은 一九○七年即距今十七年前에英國人陸軍中將『베-덴파월』卿의發表에依하야된것이다 只今은全世界에업는곳이업고 四五百萬의團員이가커가서 嬉々하며 活潑하게活動하고잇다 勿論强한나라일사록더욱旺盛하다 엇지適然의일일가보냐 第四回萬國少年軍大會가今年八月十一日로부터廿二日外지 十日間丁抹『코펜하-겐』에서開催되엿다 各國의少年團은에이따뜻한손을서로잡고 얼마나집븐우슴에웃이피엿스며 世界平和運動에 供獻하는배잇스랴 아-우리少年들드 다른나라少年과갓치손을잡고 서로親交할機會를 맨드려주기를바란다 極히 簡略한말이나마여러兄弟와서로生覺하고 祝賀하기爲하야쓴것이다

가을

明東純

綠樹蒼陰에매암이노래가굿처지고 朝暉와夕陰이서늘하게되엿스니 쇠고쇠던여름의사나운炎威도이제는 다지나간模樣이다 蟋蟀의悽愴한소래가 귀를귀뚤하면서 잠든귀를擾亂스럽게하니 벌서秋節인가십흔마음이우글우글하야 구름가치일어난다 次々派珠가튼이슬이 풀입에안기려다 片々의黃葉이하나식들식나붓기는족々 늙은이가세여커가는혈을 새삼스러히 余然한근심을하렷다 二十五絃을라는소리에 不勝情怨하든水碧沙明한瀟湘江邊雁의 소리가 萬里의구름밧게撩亂하렷다 아름답게씻든장옷을 살작버서던진美人처럼 환하고두렷한月宮殿가鮮明한맵세와 淸楚한바랑을조금도 맛김업시드러내노하 서愁然하느니思慮하느니 살흔어조혼이의 새로운感想이두瑞으로背馳하게되렷다 부질업시詩人은박숨에여매이고 外닭업시壯士는 괴짐을어루만지렷다 다아침보다도낫보다도커녁커녁보다도밤일다 밤이엿지多情도그럿케한지 萬若밤이形狀잇는것갓드면 붓은써안고長久히이世上을버리고 구름무白玉樓의永遠한즐음에 들어갈배外지라드 낫코십지아니할혈이되엿도다

背々한茶蔬들도 괴롭고앞흘을이가지못하야 붉으랴누르랴엇지할도모르다 鄕々한푸새들도엇던上盲을 반々하만난듯이한갓悲酒하고 謙護하게고개를푹々숙엿도다 이엇지殺風景이아닐쏘냐 瞭々라草露人生이며 우리가千秋萬歲多幸으로아갓혼文明時代에 出生하엿스니千金을주어도 다시求하지못할이世上이오 萬金을주어도엇지못할이世上이안일가요 이와가흔悲秋를 멋번보아서맛갑고맛가운百歲後의 悲慘한地獄에일홈는지아ㅣ아 가을이왓도다 아ㅣ아가을이왓도다

새롭이희거든 새리맛차한가지붉고 도랑맛치黃으거든 菊花ㅣ因하야누르고나 秋의繁華는草花를갈리로움이는고나 面이 繡히거드러거려노닐것이요 커ㅣ들을바라보아라 紅霞一萬頃이다 배두다릴것이로구나 눈에보이는것이 豊成함이로구나 鄕村에農夫는가을의깃붐을傳하는使徒ㅣ나 齊國로써勝捷을엇고 勞力으로써功業을이룬一年동안의 强者優勝者로구나 黃鷄白酒, 淸風明月, 楓葉의大帝幅, 蟲草의大樂曲, 가지가지로造化의고마움은 늣기지아닐수업는가을이이러로구나 가을이이러로구나 (一九二四,九,三○孔德里에서)

친구와怨讐

東進譯

終身懲役을바든 罪囚가獄을깨트리고 다라나거시작하엿다 그뒤에는 看守들이발뒤축을밟을듯이 急히짜러온다 그는죽을힘을다하야다라난다……조차오든看守들은 漸漸써러지기시작하엿다 그러나보아라 그압헤는江이잇다 江언덕은險하고 넓비는좁아도 몹곱집고 그리고그는헴헤쳠을모른다! 이쪽에서커쪽에는 엡고썩은판당이하나건너노엿슬뿐인데 그는벌서

『안된다 안돼! 어데를올라서 죽으려구 덤비누나!』 하면서 그親하다는친구는 그가올라선판당을잡어떼고말엇다! 그瞬間에 그는 출넝거리는물결속에써러지자 싸커죽고말엇다

그엽헤서이것을본 怨讐는 스스로滿足하야 우스면서가버렷다 친구는 언덕에웃석주저안커불상한친구를위하야 痛哭하엿다 그러치만은 그의죽엄에매하야 스스로自己를책망하는마음은조곰도생기지안엇다 『그게 내말을듯지안엇지! 내말을듯지안엇지!』 그는失神한듯이중얼거렷다 『그러나잘되엿지 一平生監獄生活을하는것보다는 차라리죽어 모든苦痛이커버리는것이 낫겟지 죽은便이나서 이러케된것이 그녀석의八字이겟지!』 『만은人情上엇지 그럴수가잇나 불상해!불상해!』하면서 잘못죽은친구의 運命을생각할사록 서름이나서 작구작구우럿다

月曜欄

投稿諸位에게

本月曜欄에投稿하시는이는 여더한것을勿論하고三千字以內로하여주시요, 여러段되면 한帶에 내일수가업는外닭입니다

첫가을

笑

이름은 다시덥허도 가벼운찬바람이 에워싸고잇슴을 깨닷겟슴니다 아츰마다차커가든 버드나무닙도 이러하엿슴니다 푸른빗이 무르녹든숲속에 엉키여돌든 새의노래는 듣틈이 새여감니다 우는새소래餘音은길지안으나 그러나내마음을압흐게하더이다 날마다흐르든 해볏에 집봉에덤치며 고개ㅅ짓하든닙들은 榮華의옷날이 갓가워오는가 춤추는 그맵시는 녯날과 다름니다 맑은하늘에 떠도는흰구름 뭉은별판에흐르든누른빗 나비들은춤시감광질팡합니다 먼곳에서 매암의소래가들임니다 문혓다……이엇다……

가을

同人

蕭瑟한바람은 부러옵니다 그예는『움』이터엇는가?! 녯날의남은香氣를 어데서차즈리오 넘이여넘이여 애타하며彷徨하는나를 푸른풀 건너기前에 다시한번보옵소서 ‖於新高山‖

新願

竇城 林澄煒

하느님! 나는 名譽도地位도財産도 黃金기둥의宮殿도 王冠도 다願치안슴니다 萬一내가 그것을 한가지라도갓게되면 나도또한 虛僞, 貪慾, 嫉妬의 捕虜가되고맘니다 하느님 다만비오니 나는 粉과香水를바르지안코 거즛말을쓰지안코 率直하게, 眞實하게 그대로사라지이다 八月秋夕의明月下에서

社告

海外에서本報를購讀하시는人士에게從前에는本報代金以外에別로히 一個月郵資料金으로五十錢을要하든바九月一日以後는多少變更된結果實地에貼付됨과如히 一個月郵料가八十錢式을要하게되엿사오니今後의注文하실時는郵料並一個月分을一圓六十錢으로計算하기십기玆에謹告함

東亞日報社

米豆週觀

今年도於焉間三分之一을지나고期米市場에는今年終期인十二月限新米를發會하야一層經過를多事하게되엿 [illegible] 市場에는 [illegible] 發會하야 [illegible] 經過를 [illegible] 지高價를示하더니▲週末에는急 [illegible] 大阪 [illegible]

限을始하엿고七十五丁下稍로三十十六圓二十九錢에發會되며十七錢外지軟步되엿슴은九十二錢外勢로三圓十五錢外지高價를出하 [illegible] 一圓三十五錢에發會되여一向上 [illegible] 前途即大勢는엇더할것이며目前 [illegible]

一切더活躍되엿슴은發會日아하로天게되면困하야剌戟과反動이激烈하엿슴이라▲이케앞흐로 [illegible]

供給難으로는不足을難免하리라 [illegible] 緣出의主力인半島가리라할리 [illegible] 凶作으로例年移出高에遙遠할가 [illegible] 他로例年에 [illegible]

週末陣容

期	一一,八○○		一,○○○	
	三,○○○		一○,四○○	
	九,○○○		七,○○○	
	三,○○○		五,○○○	
	二,九○○		一,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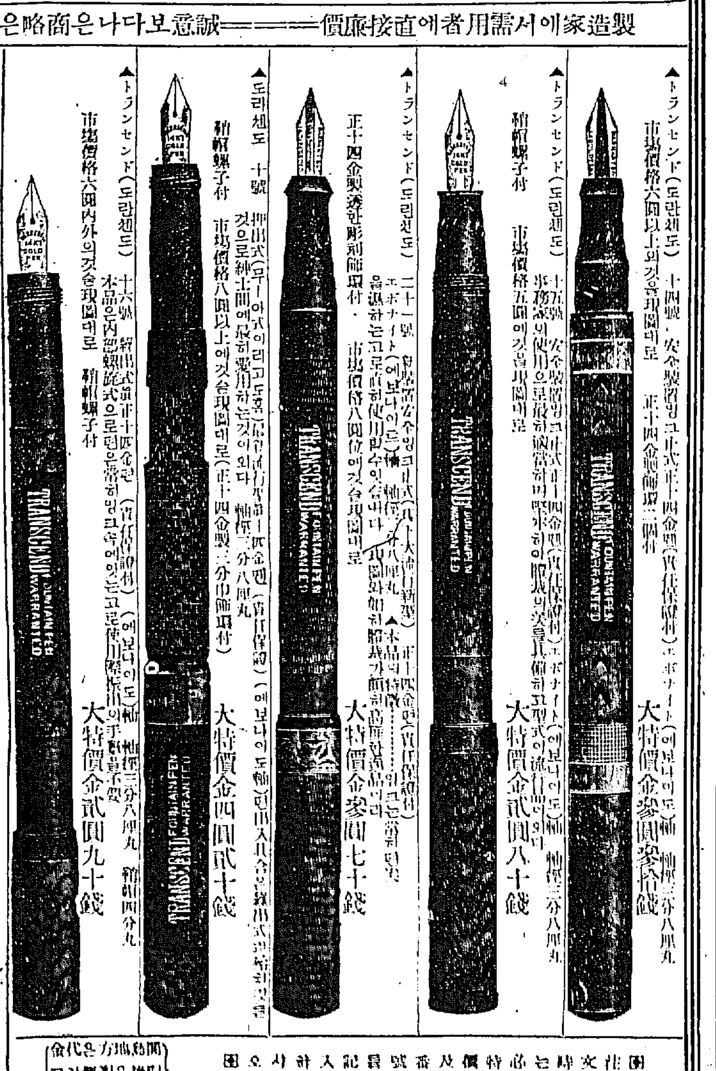
玄米	鮮出	同
同米	地方	同
正租	上每	同
大豆	龍山	同
同	長湍	同
小豆	海州	同

[illegible]

トランセンド萬年筆特價提供

薄利多賣主義도란센도最新式機械模樣附

製造家에서需用者에直接廉價══誠意보다나은商略은업나니라



▲トランセンド(도란센도) 十四號. 安全裝置잉크止式(正十四金보) 市場價格六圓以上의것을現品대로 大特價金參圓參拾錢

▲トランセンド(도란센도) 十五號 安全裝置잉크止式 事務家의使用으로最適 市場價格五圓에것을現品대로 大特價金貳圓八十錢

▲トランセンド(도란센도) 二十一號 엑보나이트(에보나이트)軸 正十四金製 特彫刻飾環付 市場價格八圓位에것을現品대로 大特價金參圓七十錢

▲도란센도 十號 押出式 紳士間에最히愛用하는것이외다 市場價格八圓以上에것을現品대로 大特價金四圓貳十錢

▲トランセンド(도란센도) 十六號 細出式 市場價格六圓內外의것을現品대로 大特價金貳圓九十錢

誓約 本廣告와現品과相違의點이잇스면如何한制裁라도甘受함

注文에關한注意

萬年筆保存注意

東京市神田區表神保町

トランセンド本舖 廣業社製作所

振替東京二○五六○番

癩病良藥

消風換骨丹

一、皮膚痲痺, 感覺不敏, 感覺過敏
一、皮膚斑紋, 赤色又暗黑色으로
一、癩疹과如히顔面及軀體에發現되는者

延藥價三週日分七圓

壽昌藥房 尹秉根

ボンタ

糸洋服裁縫用品

洋服혀대장식

渥美釦店

京城府黃金町三丁目 電話本局二四二六番 振替京城一六八三番

(營業課目表進呈)

便利靴製造專門

開城北本町

㊥松都靴店

特徵

辯護士 金炳魯
辯護士 金泰榮
辯護士 金用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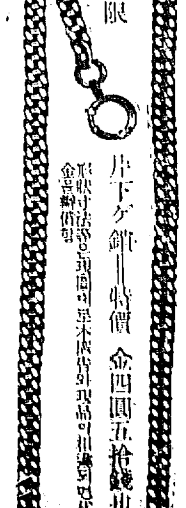
聯合法律事務所

京城府 [illegible]

時計金鎖特價提供

特許硬質二十金張 高級金張

十個年保險證添付



大正十三年十一月限하야當社負擔하야 送料

片ケ釦 特價金四圓五拾錢也

發賣所 如關社

腦病神經病之良劑

服하면服할수록頭腦가快하게되는

腦病神經病良藥 健腦丸!!

上氣나不眠이나便秘나頭痛에的確한効有함

丹平商會